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 (SC-BSI)

이은형 (연구위원, eunhyung@ricon.re.kr, 02-3284-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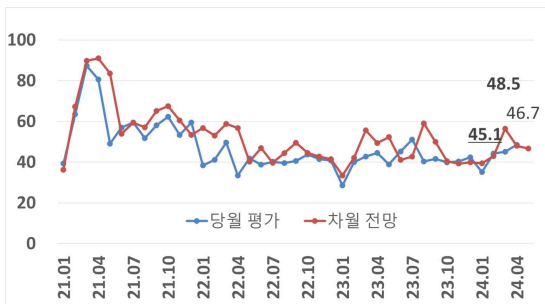
I. 2024년 4월 건설경기평가 및 5월 전망

■ 4월의 경기평가는 소폭 개선, 차월인 5월은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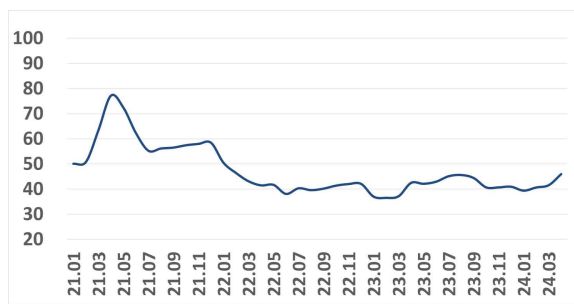
- 4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48.5로 집계되면서 전월(45.1)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3.4p), 5월(46.7)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수주감소와 공사비 증가 등 전반적인 경영악화, 중대 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인력수급 난항 등이 지적됨.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5.3(40.0→35.3)으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한 반면(-4.7p), 지방은 54.3(47.2→54.3)으로 개선세를 보였음(+7.1p).

〈표-1〉 2024년 4월 건설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5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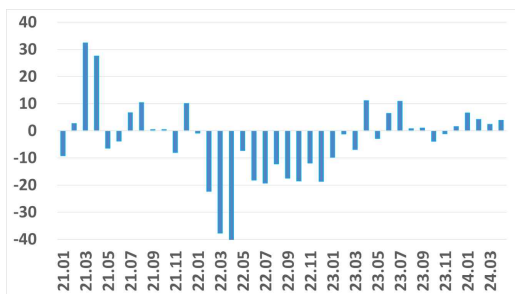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2024년 4월 평가	48.5	44.6	35.3	54.3	25.8	56.1
2024년 5월 전망	46.7	52.3	37.3	50.9	29.0	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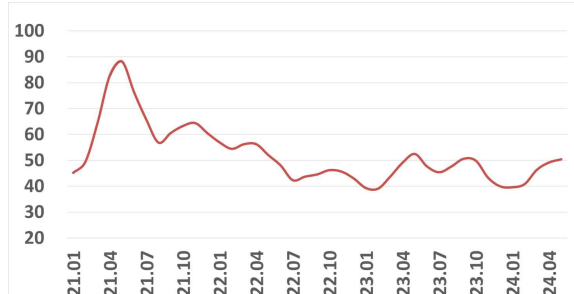
〈당월 평가 및 차월 전망 추이〉



〈당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당월 평가)〉



〈차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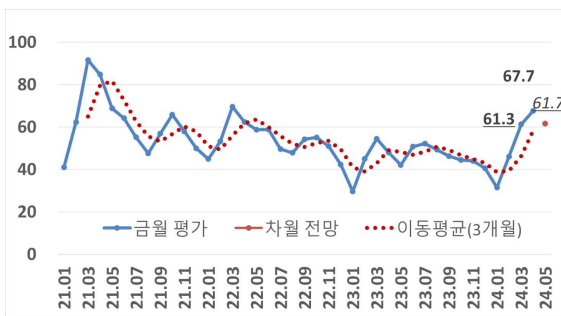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전월보다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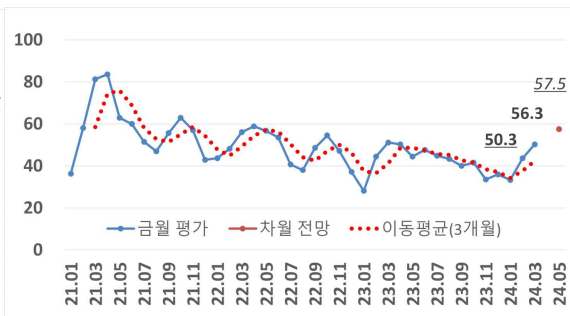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수주가 67.7(61.3→67.7)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으며(+6.4p) 이는 전년 동월(48.0)보다 높은 수준임. 하도급수주도 56.3(50.3→56.3)으로 전월에 이어 개선되었으며(+6.0p) 역시 전년 동월(50.3)보다 높은 수준임.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62.0→76.5)에서 크게 상승했으며(+14.5p), 지방(61.0→63.8)은 전월의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됨(+2.8p).
-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도 수도권(56.0→68.6)에서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며(+12.6), 지방(48.0→50.9)은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남(+2.9p).

〈표-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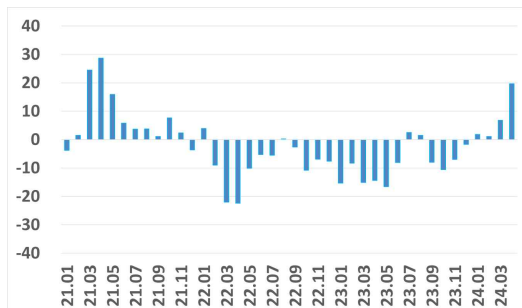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원도급 수주	2024년 4월 평가	67.7	48.0	76.5	63.8	77.4	75.4
	2024년 5월 전망	61.7	59.3	70.6	57.8	71.0	73.7
하도급 수주	2024년 4월 평가	56.3	50.3	68.6	50.9	77.4	63.2
	2024년 5월 전망	57.5	58.2	62.7	55.2	71.0	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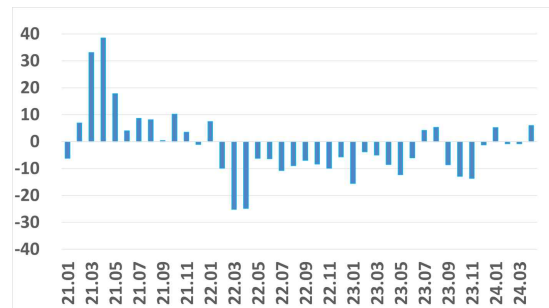
〈원도급 수주〉



〈하도급 수주〉



〈원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하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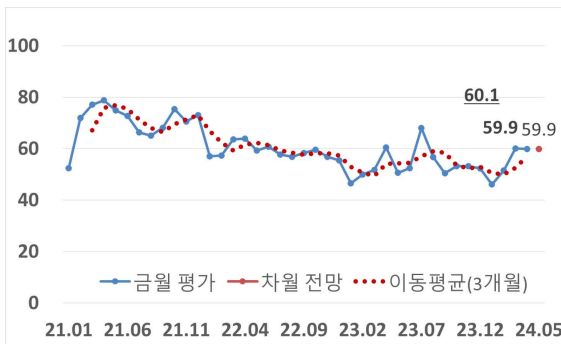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와 자금조달지수 모두 전월 수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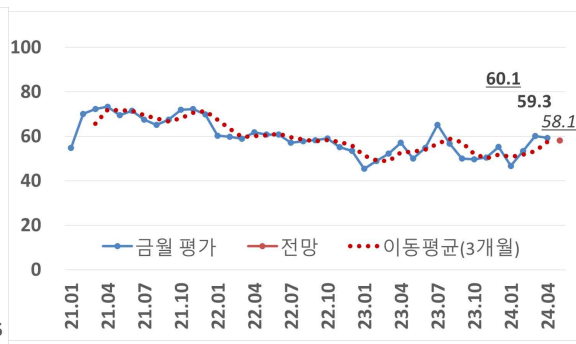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59.9(60.1→59.9)로 전월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0.2p), 차월(59.9)도 금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망됨(+0.0p).
 - 수도권(52.0→49.0)은 전월에 이어 소폭 하락했으며(-3.0p), 지방(63.4→64.7)은 전월의 수준이 지속됨(+1.3p).
-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59.3(60.1→59.3)으로 전월의 수준이었으며(-0.8p), 차월(57.1)에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조사에 참여한 일부 업체들은 금리 인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이는 선투입되는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음.
 - 수도권(50.0→52.9)은 전월과 유사(+2.9p), 지방(64.2→62.1)도 유사한 양상임(-2.1p).

〈표-3〉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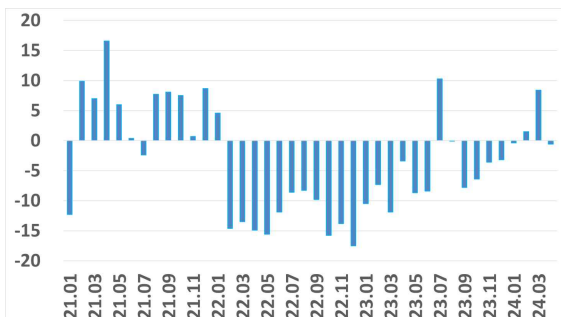
구분		총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공사대금수금	2024년 4월 평가	59.9	60.5	49.0	64.7	58.1	61.4
	2024년 5월 전망	59.9	61.0	52.9	62.9	58.1	70.2
자금조달	2024년 4월 평가	59.3	57.1	52.9	62.1	61.3	63.2
	2024년 5월 전망	58.1	59.9	54.9	59.5	58.1	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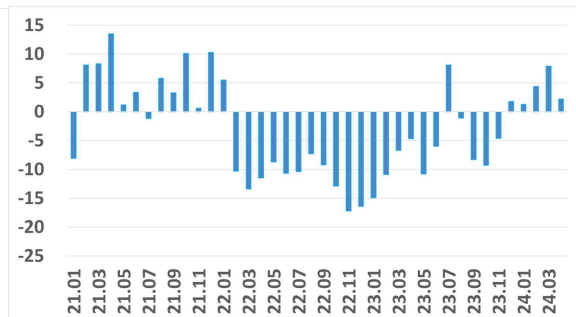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공사대금수금 증감(전년 동월비)〉



〈자금조달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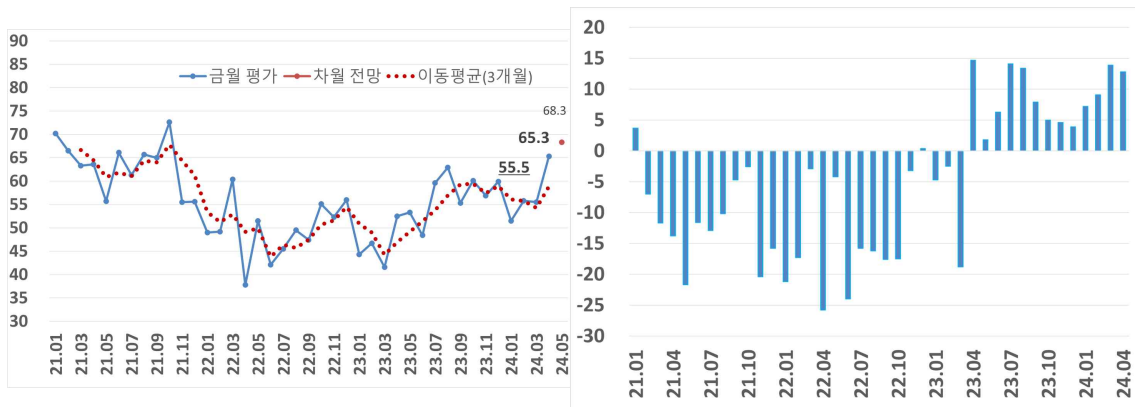
3 건설기능인력 관련 지수 (인건비, 인력수급)

■ 인건비체감과 기능인력수급은 전월보다 개선

- 인건비체감¹⁾ 경기실사지수는 65.3(55.5→65.3)으로 전월보다 상승했으며(+9.8p), 이는 전년 동월(52.5)보다 높은 수준임. 이는 심각했던 전년의 조사 결과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한 결과임에 유의해야 하며, 인건비 상승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는 상황임.
 - 수도권(50.0→60.8)은 전월보다 크게 상승했으며(+10.8p), 지방(57.7→67.2)도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함(+9.5p).
- 기능인력수급 경기실사지수²⁾는 77.2(71.1→77.2)로 전월보다 개선되었고(+6.1p), 전년 동월(66.7)보다 높은 수준임.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응답은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문제와 함께 전문적인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 이들의 수급 자체가 문제시된다는 것이었음.
 - 수도권(60.0→74.5)은 전월보다 크게 상승했으며(+14.5p), 지방(75.6→78.4)은 전월에 이어 소폭 개선됨(+2.8p).

〈표-4〉 인건비 및 기능인력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인건비 체감	2024년 4월 평가	65.3	52.5	60.8	67.2	45.2	84.2
	2024년 5월 전망	68.3	56.5	64.7	69.8	45.2	86.0
인력수급	2024년 4월 평가	77.2	66.7	74.5	78.4	74.2	91.2
	2024년 5월 전망	76.0	66.1	68.6	79.3	67.7	91.2



〈인건비 체감 (개선·악화정도)〉

〈인건비 증감(전년 동월비)〉

1) 기능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의 체감도(개선 또는 악화)를 의미함
 2)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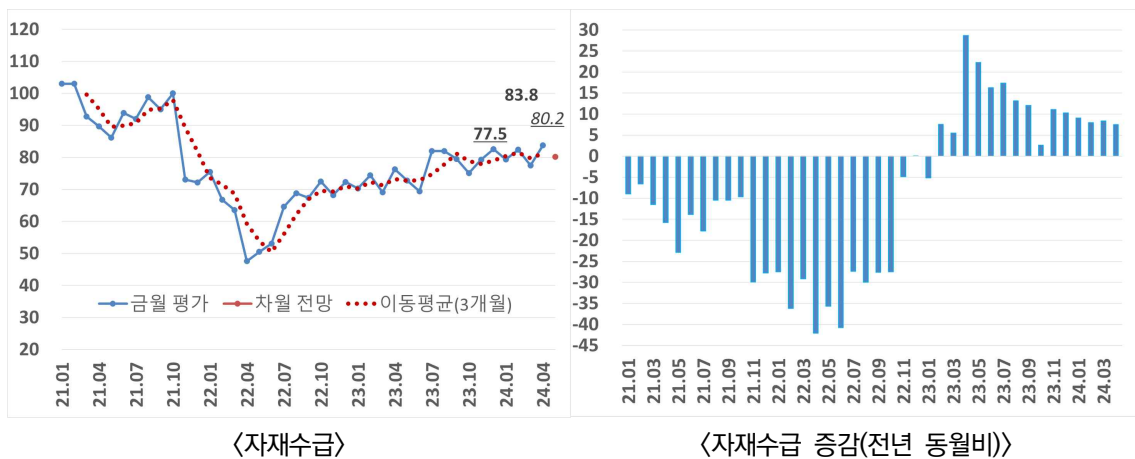
4 건설자재 관련 지수 (자재비, 자재수급³⁾)

■ 자재비지수는 연이어 전월 수준, 자재수급지수는 소폭 개선

- 자재비⁴⁾ 경기실사지수⁵⁾는 50.9(50.9→50.9)로 전월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며(+0.0p) 차월(56.9)에는 소폭의 상승이 전망됨(+6.0p). 인플레이션 등의 지속적인 여파로 공사비 증가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임.
 - 수도권(58.0→47.1)은 전월보다 크게 하락했으며(-10.9p), 지방(48.0→52.6)은 소폭으로 상승함(+4.6p).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⁶⁾는 83.8(77.5→83.8)로 전월보다 개선되었으며(+6.3p) 차월(80.2)에는 일부 변동이 전망됨(-3.6p).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자재 수급에 대한 문제가 건설 현장에서 부각되는 사안은 아님.
 - 수도권(70.0→72.5)은 전월의 수준이었지만(+2.5p), 지방(80.5→88.8)은 전월 대비 개선된 것으로 집계됨(+8.3p).

〈표-5〉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자재비 체감	2024년 4월 평가	50.9	43.5	47.1	52.6	41.9	64.9
	2024년 5월 전망	56.9	51.4	56.9	56.9	41.9	68.4
자재수급	2024년 4월 평가	83.8	76.3	72.5	88.8	61.3	98.2
	2024년 5월 전망	80.2	75.1	66.7	86.2	54.8	94.7



- 3)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게 나타남.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나 종합 건설업체로부터 자재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고, 실무적으로도 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드물기 때문임
- 4) 기업들이 구매하는 자재비의 체감수준(개선 또는 악화)을 의미함
- 5)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 6) 코로나 이전 시기의 지수는 대략 100정도 수준이었음을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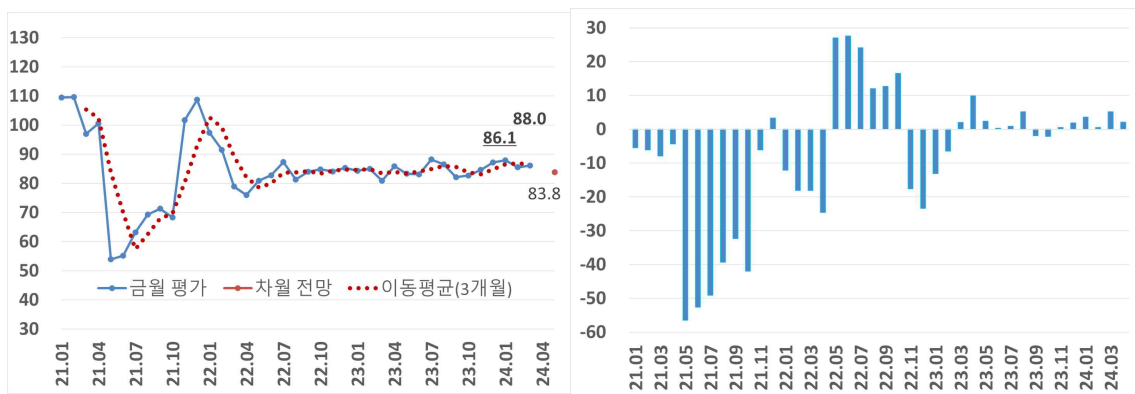
5 건설장비 수급지수 (장비임대료, 장비수급)

장비임대료지수와 장비수급지수는 전월과 유사

- 장비임대료 경기실사지수는 65.9(65.3→65.9)로 전월과 사실상 동일했으며(+0.6p), 차월(71.3)에는 일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5.4p). 금월의 조사 결과는 전년 동월(62.7)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해도 무방한 정도임.
 - 수도권(64.0→62.7)은 전월과 비슷했으며(-1.3p), 지방(65.9→67.2)도 유사한 수준을 보였음(+1.3p).
- 건설장비수급 경기실사지수는 88.0(86.1→88.0)으로 역시 전월과 유사했으며(+1.9p), 차월(83.8)에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4.2p). 그렇지만 건설장비의 임대료가 아닌 수급 자체는 별다른 문제로 지적되지 않았음.
 - 수도권(82.0→80.4)은 전월과 유사했으며(-1.6p), 지방(87.8→91.4)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3.6p).

〈표-5〉 건설장비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장비 임대료 체감	2024년 4월 평가	65.9	62.7	62.7	67.2	48.4	78.9
	2024년 5월 전망	71.3	64.4	72.5	70.7	58.1	86.0
장비수급	2024년 4월 평가	88.0	85.9	80.4	91.4	61.3	105.3
	2024년 5월 전망	83.8	84.2	78.4	86.2	71.0	96.5



〈건설장비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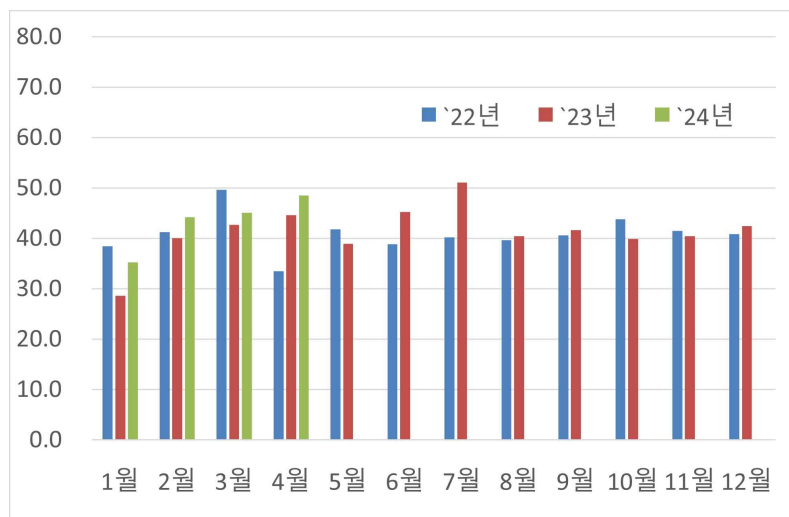
〈건설장비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참고: 2024년 4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48.5	44.6	35.3	54.3	25.8	56.1	
	차월 전망	46.7	52.3	37.3	50.9	29.0	52.6	
공사물량	원도급 수주	금월 평가	67.7	48.0	76.5	63.8	77.4	75.4
		차월 전망	61.7	59.3	70.6	57.8	71.0	73.7
	하도급 수주	금월 평가	56.3	50.3	68.6	50.9	77.4	63.2
		차월 전망	57.5	58.2	62.7	55.2	71.0	68.4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금	금월 평가	59.9	60.5	49.0	64.7	58.1	61.4
		차월 전망	59.9	61.0	52.9	62.9	58.1	70.2
	자금조달	금월 평가	59.3	57.1	52.9	62.1	61.3	63.2
		차월 전망	58.1	59.9	54.9	59.5	58.1	71.9
건설 기능인력	인건비 체감	금월 평가	65.3	52.5	60.8	67.2	45.2	84.2
		차월 전망	68.3	56.5	64.7	69.8	45.2	86.0
	인력수급	금월 평가	77.2	66.7	74.5	78.4	74.2	91.2
		차월 전망	76.0	66.1	68.6	79.3	67.7	91.2
건설자재	자재비 체감	금월 평가	50.9	43.5	47.1	52.6	41.9	64.9
		차월 전망	56.9	51.4	56.9	56.9	41.9	68.4
	자재수급	금월 평가	83.8	76.3	72.5	88.8	61.3	98.2
		차월 전망	80.2	75.1	66.7	86.2	54.8	94.7
건설장비	장비임대료 체감	금월 평가	65.9	62.7	62.7	67.2	48.4	78.9
		차월 전망	71.3	64.4	72.5	70.7	58.1	86.0
	장비수급	금월 평가	88.0	85.9	80.4	91.4	61.3	105.3
		차월 전망	83.8	84.2	78.4	86.2	71.0	96.5

주1: '전체'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합산해서 산출.

주2: '광역시'는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최근 3년간의 SC-BSI 비교〉